

연명치료 중단 의사표명 160만 명...광주·전남은 저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의료기관 치료중단 이행 26만건 인구 3.4% 등록...광주 2.4%·전남 2.95% 전국 평균 못미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국민이 160만 명을 돌파했지만 광주·전남지역 시도민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표명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5년간 26만여 건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모두 160만959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전국 총인구의 3.4%가 등록한 셈이다. 이중 남성이 50만4769명, 여성이 109만6190명이다.

하지만 광주지역에서는 3만7838명(2.4%), 전남지역은 4만6618명(2.95%)이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에 서명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1월말 기준 총 26만2529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뿐 아니라 담당 의사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진술·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1월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복지관 등 전국 611 곳이다.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등록기관을 확인해 방문한 뒤 상담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 단체 상담과 등록을 원하면 '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찾아가는 상담'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의향서 등록에 참여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직접 참여하게 됐다"면서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21일 광주 북구보건소 긴급처량 주차장에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직원들이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차량의 구급약품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를 두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

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연립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 2월 법안처리 '불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합의점 못찾아...3월 국회서 재논의 전망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2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힘들어졌고, 이르면 3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처리 되지는 못했다.

대신,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달 소위가 열리기 전 정부와 상임위, 의원실이 만나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소위 과정에 합의 가능한 것들과 쟁점 등을 정리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기부대양어 방식에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요영 원

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쌍둥이법'으로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부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부산 가덕 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법안을 전체적으로 읽고 정부 측 의견도 청취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합의된 것도 있어서 3월에는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는 군 공항만 이전하면 되지만, 대구는 민간공항까지 있어서 다소 복잡하다"며 "서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에너지 절약하고 돈도 버는 '탄소포인트제' 인기

광주 가입률 1위...전기·수도·가스 절감시 연간 최대 40만원 지급

난방비가 급상승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 전체 63만여 세대 중 58%정도인 36만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전국 대도시 지역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광주가 압도적으로 높다.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데다가 은행과 연계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해온 결과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8만5000여 세대에 10억 3000여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30년산 소나무 144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9만 5286t 감축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그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공동주택 거

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부문, 사업자·학교·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으로 나눠 개인은 연 최대 10만원, 상업 부문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2879대를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땅,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명품 매장이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종운(620203-XXXXXX)
• 최후주수 : 광주 광산구 아산길13번길 10-1 (비아동)

피상속인 망 박종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 단98호로 신청하여 2023년 2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 및 주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2월 22일

• 상속인 : 박진홍(860411-XXXXXX)
광주 광산구 비아산길 99-3(비아동)

• 신고기간 : 2023. 02. 22 ~ 2023. 03. 04.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진홍의 주소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1.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카이에너지그룹 주식회사
2. 사업명칭: 카이보성주민주민바람발전소
3.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풍산리/육관리 일원, 용치면 봉산리/유산리 일원, 회천면 영천리 일원
4. 발전사업설비용량: 88MW
5. 사업개시예정일: 2025년 6월
6. 사업운영기간: 준공 후 20년
7. 의견제출 기간: 2023. 02. 22 ~ 2023. 03. 08
8. 연락처: 062 673 7229

2023년 2월 22일
카이에너지그룹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재경

kwangju.co.kr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3년 2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원 중 금99,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1,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써 발행주식총수 10,000주중 9,900주를 회망하는 주주로부터 매수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1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지는 주주는 구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주식회사 삼성정보통신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평암서원로 168-29 대표이사 오늘

71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선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 광 525-3761	• 신 양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명 671-7276	
서 구	• 권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062.227-9600